

II급 부정교합의 편악발치 증례

최진영 /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

Dr. Angle이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가 하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구와 일치하는 교합 관계를 Class I 교합으로 정의한 이후, 이러한 교합 관계는 이상적인 관계로 인정받아 교정치료의 최종 목표로 자리잡아 왔다. 이때 Class I 구치 교합 관계와 전치부의 적절한 수평 및 수직 피개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는 상악과 하악의 치아 수가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. 그러나 일부 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의 경우, 상악에 서만 소구치를 발치하고 하악에서는 발치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, 이때 구치의 교합은 II급 관계가 되어야 전치부의 교합을 이상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상악 편악 소구치 발치를 결정할 때는 총생의 양, 초기 구치부의 관계, 전치부의 각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, 특히 편악 발치와 양악 발치의 경계선 증례에서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. 또한 상악 편악 소구치 발치 후 교정치료를 진행할 때는 적절한 고정원 선택이 중요하며, 구치의 안정적인 교합 형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수직적인 조절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.

이번 강의에서는 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진단 후 치료계획 시 상악 편악 소구치 발치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하고, 치료 과정 전반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전략에 대해 증례들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.

학력 및 경력

- *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- * 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석사
- * 아주대학교병원 치과교정과 레지던트
- * 경희대학교 치의학과 박사
- *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전임의 및 임상조교수
- * 현,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조교수